

군선교 신학

10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MEAK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및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 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제목**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 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50여 군선교 교역자,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교문화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 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등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10. 기독교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은 너무 험해졌습니다. 도움을 호소해 도와줬더니 강도로 돌변한 사람들, 택배기사를 사칭해 강도짓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칼을 휘두르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강력범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점점 더 서로를 믿지 못하며 선한 의도로 하는 일조차 의심받기 일쑤입니다. 혹시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하여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개입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험한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군선교연합회에서는 “선사인(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군복무 동안 기독장병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을 찾아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군사가 되자는 캠페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캠페인이라는 이름만 없었지 신앙이 있는 장병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장병들이 선사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좋은 군사로서 군복무를 할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는 “대한민국의 선사인”이 되어 우리 사회와 주변을 건강하게 만드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

활을 다하여 새로운 교회선교사역으로 펼쳐가기를 기대합니다.

《군선교신학》 논문집 10권 출간에 맞추어 개최하는 제12회 한국교회 군선교 신학심포지엄은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기독장병들이 어떻게 하면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 논문집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증거와 실제”, “선사인 캠페인 실천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직접적인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에 관한 논문들과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 “군에서의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등의 우정, 상담 등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논의하는 데 바탕이 될 만한 주제들을 다룬 논문도 실려 있습니다. 군선교 현장 속 생생한 신학적 이슈들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제안하는 이 논문집이 아무쪼록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동기 부여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국내외 군선교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군선교신학회” 회장 되시는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쿰란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과 사무처 사역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군종목사님들과 군선교교역자, 독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9월 30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한국 군선교 신학회는 군복음화 전략 개발뿐 아니라 강군 육성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도 연구한다. 따라서 금번 신학회 주제는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교회의 실천적 방안을 찾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을 집중 연구하여 이를 확산기로 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신학자들과 학문적 수련을 깊이 있게 연마한 군목들이 심도 있게 연구한 15편의 주옥같은 논문을 신게 되어 전군 군목은 물론 군선교 관계자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줄 믿는다.

국방의 성업을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군인들은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적 문제로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내부적 문제들이 인격 수련이나 정신 무장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데 더 문제가 있다. 더 깊은 영적 상처와 질병을 어떻게,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자명하다. 그것은 상담이나 심리치료 요법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이라는 명약이다. 그 신앙을 가진 이들이 신음하는 전우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 주자는 운동이다.

누가 나의 이웃이며,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신앙은 아가페 사랑으로 표출되어 불한당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싸매주고 돌봐주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개인도, 부대도 구한다는 성경원리를 실천하지는 것이다. 사랑의 선사인 캠페인이 기독교인들을 통해 병영 내에 퍼져 나갈 때 대한민국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함께 귀한 글을 써주신 분들과 한국군선교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Soli Deo Gloria

2012년 9월 30일

이종윤 목사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머리말 | 광선희 목사 ... 4

발간사 | 이종윤 목사 ... 6

11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교회의 실천적 방안) | 이종윤

35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 박종화

45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 주연중

48 선사인 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최석환

75 선사인 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진섭

85 광야 - 사막에 피어난 다윗의 신앙과 삶(시 23:1-6) | 강사문

102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 김일수

135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 | 안명준

168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 | 이규철

203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래적 전망 | 김상만, 김택조, 이정우

216 군에서의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 김동연

245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 장병 양육 연구
(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 | 오희준

271 비전 캠프를 통한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 및 선교의 가능성 연구
| 유 현

293 21세기 한국 군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에 관한 연구 | 홍석균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 교회의 실천적 방안-

■ 이종윤 Lee, Jong Yun

- 서울교회 위임목사(Rev. Ph.D., D.D., D.D.)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 Div, D.D.)
 - 영국 Univ. of St. Andrews(Ph. D.)
 - 독일 튀빙겐 대학
 - 장신대 명예신학박사(D. 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운동 실천위원장
 - 장로교신학회 회장, 한기총 신학위원장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대한민국 65만 5천 명의 전 장병들의 병영 생활을 인적 사고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병영 문화로 만들어 가는 것은 법과 제도적 장치 이전에 본질적으로 장병들의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군내에 존재해 온 악습, 특히 반인륜적 폐습들, 즉 구타,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모욕과 개인적 고민이 군기를 문란케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군인의 생명인 단결을 저해하는 것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와 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본 신학위원회는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 교회-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을 주제로 제14차 신학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답을 찾고 문제 해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군생활이 그들의 인격적 변화를 통해 더욱 보람차고 미래 국가 지도자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1. 원리(Principles)

1)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문제를 회피한 이들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고난당한 이를 실제로 도운 이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질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실 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할 때 주신 말씀이다(눅 10:25-37).

여리고 도상은 험준하고 위험한 곳이다. 사람들은 피의 길이라 불렀다. 예루살렘은 해발 3,000피트, 그곳에서 27km 떨어진 여리고는 지중해보다 1,000피트 밑에 위치한다. 산악지대의 낭떠러지들과 동굴들이 마을들 사이에 있는 여리고 성 길목엔 강도들이 숨어 있거나 쉽게 도피처로 삼

는 곳이다. 여리고로 여행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야 했다.

이 음산한 골짜기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30절).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비유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들 두 사람의 비겁한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이 음산한 계곡을 지나가야 하는데 강도 떼가 모퉁이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자기 안전상 또는 치안 담당관에게 빨리 가서 알리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그곳을 허겁지겁 빠져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을 피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레위인의 규례 중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리니(민 19:11-16), 그는 7일 동안 예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제사 직분을 맡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으로서는 죽었는지도 모를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직업적 종교인들에게 더 높은 사역을 위해 쓰러져 있는 이를 피해 간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을 요구하는 낮은 거류민에게라도 자비를 베푸라는 성경 말씀을 무시한 것이다(레 19:34).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도와 주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이러니하게 어떤 이유에서이든 강도 만난 이를 피해 갔다. 제사장은 국민 보전을, 그리고 레위인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의무가 있는 이들이다.

그들의 짜여진 스케줄이 그들로 하여금 피하여 가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22)는 성도의 기본 원리를 분명히 부정하는 것이다.

피 흘려 쓰러진 유대인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간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만났던 동일한 위험인물을 보게 된다. 그는

단순하게,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아주 적대적이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해서 그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부르기도 했다(요 8:48).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33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필요를 돕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우정과 지원, 응급치료와 교통편 제공, 거액의 재정 지원금과 돌아올 때 다시 방문까지 하게 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6-37).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가 요구되는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 재정 지원, 의료 봉사, 우정을 제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의 모범(paradigm)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는 자기 안전이 위협을 받고, 스케줄이 뒤죽박죽이 되었고, 다른 민족이면서 사회적 신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더럽고 피 묻힌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는 ‘교회가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을 공동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를 자문해 보자.

(1) 질문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 율법사가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한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전혀 실제로 지키지 않는, 그리고 자기변명만 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주신 비유다. 그가 이 비유를 통해 주신 여러 질문들은 오늘날도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를 행해야 영생이 주어지는가?

이 비유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육신적, 경제적 필요를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한 부자 관원의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21절)는 결론적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본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굶주리고, 헐벗고, 집 없고, 병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마 25:31 이하). 그렇다면 사회사업가들만 천국에 간다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Sola Fide)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았나? 어째서 자비 사역이 그리스도인 되는 중심 주제로 나타난 것인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비 사역은 공로 신앙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참된 신앙을 검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비(사랑)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비를 보이는 것이 참 신앙을 가진 이의 확실한 사인이 되는 것이다. 그 열매로 알지니 하신 말씀처럼,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 됨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13-17; 잠 14:31, 19:17).

둘째로 질문은 자비 사역의 범위와 크기의 문제다.

율법사는 도움을 요구하는 자를 돌보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것을 부인하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불행에 처한 이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자기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나 가까이 그에게 가야 하느냐는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 봉사를 퍼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 집에서 봉사는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고 한다. 우리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교회

섬기기도 힘든데 국가가 해야 할 일까지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한다.

무책임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스쳐 지나갈 때, 예수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거스른 거짓 종교인들의 가면을 벗기신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가 원수일지라도 도와야 할 것을 보여 줌으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셨다.

셋째로, 자비 목회의 동기 또는 원동력에 대한 질문이다.

이스라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근본 목적을 망각한 율법사에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다. 사람이 의무만 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적 지식이나 윤리적 원리보다 노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과 민족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지식은 없었다. 그러나 그에겐 동정심(공휼심)이 있었다.

교회가 무엇으로 자비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현대 교회가 동정심이 결여되었다는 것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오늘날 교회는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을 치유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하는 이를 채워주고 사회를 변혁시킬 능력을 만들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 나라 백성이 기근이나 홍수, 지진을 만나 재난 속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구제 단체나 교회의 현금 바구니에 구제금을 넣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 살기에 안전하지도 않고 험벗고 굶주리고 집 없이 거리에서 죽음에 누워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전쟁, 부정, 박해, 기근, 자연 재앙, 가정 파괴, 질병, 정신병, 장애, 민족주의, 범죄, 원자재 부족, 계급 투쟁 등,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 낸 문제들이다. 이것들은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비참으로 끌고 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여리고 도상에서 살고 있다.

2) 누가 나의 이웃인가?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도와준 이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신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나 성경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네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빈곤층, 노숙자, 임시직 종사자, 결혼 가족, 청년 실업자, 다문화 가족, 탈북 난민, 노동자, 노인,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환자, 재소자, 장애인, 미혼모, 이혼자, 고아, 과부, 소외된 이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는 여리고 도상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들의 필요는 다양하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강한 충정심(공휼심)을 갖고 이들 새 이웃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도상에 누워 있는 이웃을 위한 책임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참 아담이시다(히 2:5-8; 엡 1:10).

예수 그리스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참 대제사장이시다(히 4:14-16).

그는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신(고후 8:9), 그리고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막 10:45) 참 집사이시다(롬 15:8).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의 발을 겸손히 씻는 집사다(마 20:26-28; 갈 6:10) 모든 신자는 자비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히 13:13-16). 모든 신자는 만물을 주님께 복종케 하는 새 아담이다(마 28:18-20; 고후 10:5).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다. 설교자나 변증자로 훈련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적 상담자나 심리 치

료사의 기능을 갖추지 않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를 돕는 헬퍼(helper)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비 사역만은 신자마다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이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3) 자비 사역의 특성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의 다양한 필요 사항을 직시했다.

첫째, 육체적 상황을 돌보는 일이었다. 그에게 가까이 갔다. 희망이 끊어진 이에게 친구나 변호사가 옆에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계신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말한다(요일 2:1).

둘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다.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셋째, 재정 지원을 하되, 그가 완치될 때까지 또는 사마리아인이 돌아올 때까지 비용을 책임지겠다 한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하고 교통편까지 제공하는 것은 너그러운 관용이고 자비 행위다.

넷째, 사마리아인의 자비의 범위는 매우 넓고 크다. 육신적, 재정적으로 희생당한 이의 정서적 필요까지 채워 주었다.

다섯째,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요구한다는 것은 의존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피조된 의존적 존재다. 우리는 자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만족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4가지 소외(alienations)가 일어났다. ① 하

나님으로부터 소외, ② 자신으로부터 소외, ③이웃으로부터 소외, ④ 자연으로부터 소외가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자연 질서도 치유될 것이다(시 96:11-13; 롬 8:20-21).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 시 우리는 그의 왕권에 완전 복종을 하고 참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왕권이 모든 생명과 자연에게 미칠 것이다. 죄로 소외되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유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으로부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질병, 좌절, 궁핍, 저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새 생명이 흘러넘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저주들이 물러가고 교회는 단순한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치유를 도와야 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믿음 그리고 새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다(요 3:5; 롬 14:17; 마 12:28).

하나님 나라의 전도는 전인적((w)holistic)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험 공장(pilot plant)이다. 용서받은 개인들의 집합체뿐 아니라 반문화(反文化)적인 거룩한 나라다(벧전 2:9).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족, 사업, 종족 관계,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에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단체다. 죄의 결과로 맺은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심리적, 사회적, 육신적 상처를 교회가 치유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agent)이다. 하나님의 통치로 치유하는 모델일 뿐 아니라 그것을 확장시켜야 한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벧전 2:9)이 교회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다(행 1:6-8).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상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것과 동시에 자비와 공의를 실천하여 개인, 가족관계, 국가간 갈등을 치유하는 일도 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말없이 행동으로 자비 사역을 했다. 행동 섬김을 신약성경은 ‘디아코니아(diakonia)’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얘기가 나온다. 많은 여 제자들이 음식 준비와 다른 육신적 필요를 도왔다. 이런 사역을 ‘디아코니아’(마 27:55; 눅 8:3)라고 부른다. 초대교회는 과부들을 위해 매일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다. 그것이 섬긴다는 ‘디아코니아’(행 6:2)이다.

신약에서 영적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주어졌다. 그 하나가 말씀 은사요, 다른 하나는 행동 은사다. 이 행동 은사는 누가복음 22장 24-27절과 요한일서 3장 17-18절에서 보인다. 누가 크냐는 논쟁에서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diakonia)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2:27). 희랍 문화의 가치관을 뒤집는 것이다.

섬기는 자(diakonia)가 그리스도 사역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자리는 개념이다. 무릎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삶의 모델이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요일 3:17-18).

4) 자비 사역의 동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눅 10:33) 그를 도와주었다. 자비 사역의 참된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붙잡힌 데 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을 안다면 버림받아 소외된 이들과 사랑받지 못한 이들에게 관용하는 마음을 크게 열게 될 것이다.

율법사는 자기의 도덕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생각했다. 그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 이다(눅 10:29).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에게 보여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해주셨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스스로는 불가능한 무사기한 사랑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다. 영적으로 부한 자로 자처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율법사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을 선포하신 것이다(사 64:6 참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사가 강도 만나 쓰러진 자로 자신을 알고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자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율법사를 위해 예수께서 준비하신 복음은 무엇인가? 자기 피를 흘리고 영적 파탄자요 잃어버린 자가 된 이에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영적 부요함을 제공하셨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부와 의를 그를 믿는 이들을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우리는 구더기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왕의 옷을 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게 하셨다.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버림받은 자가 영광스런 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이사야, 야고보, 요한, 바울)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자비 사역을 하는지로 보겠다고 한다.

사마리아인의 종족과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그의 행동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사회적 관례를 따른 것도 아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도 아니다. 다만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가 움직였다. 하나님은 필수적이라 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푸라는 것은 명령이다. 그러나 그 명령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응답으로 남에게 큰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죄의식이 남을 돕는 동기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 한국인은 많은 나라 백성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입어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백성들이 지구상에 10억이 넘는데, 우리는 체중 감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식으로 남을 도우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기근을 위하여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고 한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도움을 받는 이들보다 더 상류층에 속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나? 그들의 넘치는 기쁨(고후 8:2)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림으로(고후 8:5) 자비행위가 일어났다. 자기를 비우신 주님께 대한 마게도냐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그들의 연보는 그들의 수입 수준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한 응답이었다.

자비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에서부터 오는 자연 발생적인 풍성한 사랑에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 사람이 더 많은 관용을 베푼다. 따라서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크게 자유롭게 주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지 않으려면 거듭난 새 마음이 되어야 한다.

자비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제물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발에 기름을 바르도록 몸으로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사랑과

존귀로 그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섬기도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다(요 12:1-8).

마게도냐 성도들의 구제 연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이라 했다(고후 9:12-15). 바울을 위한 빌립보 성도들의 연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다(빌 4:18). 히브리서는 경제적 나눔을 찬송의 제사라고 했다(히 13:15-16).

그러면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인가? 바울은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빌 2:5).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을 본받으라. 세상을 향해 교회는 내게로 와서 내 언어를 배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세상으로 가서 그들에게서 듣고 필요를 찾고 공의와 자비를 행하여 성경적 진리를 나누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제시한 사회적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런 이들의 잠을 깨워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말하면서 희생적으로 주는 일은 본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 돈은 내 것이기 때문이며, 가난한 자는 보답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가난한 자는 받은 것을 남용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많은 것을 더 자주 자유롭게 감사가 없고 보답할 수 없는 불쌍한 이들에게 주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광과 기쁨을 누리셨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이 복을 받게 되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행 20:35)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비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자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 모두가 자력으로 설 수 없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요, 여리고

도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다. 본래 우리의 원수요 아무 상관도 없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자기 영적 부를 내게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설명된 것은 증명하기 난해하다. 그러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여리고 도상에 쓰러져 있는, 즉 영적으로 불쌍해진 사람을 자신으로 보는 사람은 오늘도 소외되어 버려져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5) 균형 잡힌 삶 : 주는 것과 가진 것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눅 10:35).

그리스도인의 삶은 낮아질 때까지 희생적으로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은 부르심과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가족이 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소유의 청지기가 되어야 부담없이 줄 수 있다.

먼저, 사마리아인이 준 것은 매우 값비싼 것이었다. 우선 자신의 시간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위험한 길에서 자신의 안전에 위험을 느꼈다. 강도가 돌아온다면 그의 사역은 더 높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 주막에서 거하는 경비까지 지불하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다.

그리고 자비 사역은 값비싼 것이다. 사무실에서 나는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비 정신이 아닌 명목상의 구제를 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한다. 불쌍한 사람에게 단순히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되 충분하게(bountifully) 주어야 한다(신 15:7-8; 고후 9:5).

물질만 아니라 마음과 사랑으로 보살피야 한다(시 41:1). 시간과 마음 그리고 애정을 갖고 도와야 한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신다(고후 9:7).

오늘 중상류층에 속한 이들이 자기 삶을 급진적으로 개혁함 없이 자비 사역을 한다면 가능할까?

그리스도인은 검소한 생활(simple life)을 해야 나눌 수 있다. 기본 생활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주님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위해 주기 위함일 것이다. 존 웨슬리는 죽었을 때 한 벌의 외투와 두 개의 은수저만 남겼다. 그는 설교와 저술한 책의 인쇄비가 연 1,400파운드였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연 30파운드도 쓰지 않았다. 그의 수입이 40배 증가했을 때 그는 이렇게 써놓았다. “내가 10파운드를 남겨 놓고 살다 죽으면 모든 인류는 나를 도적이요 강도라고 대적할 것이다.”

‘절제 있는 삶을 살라’ (be moderate)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 13:5).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죽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히 6:6-10).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을 먹을 것과 은신처 즉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절제된 삶의 스타일을 말한 것으로 읽는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을 믿고 절제 있는 삶을 살라 하신 것이다.

품위 있는 삶의 스타일(decent life style), 즉 음식과 옷만 있으면 죽한 삶을 사는 것으로 권유한다. 은퇴 후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축재하지 말라는 것이다(마 6:19-21).

교회와 세상 중 우선권 설정을 해야 한다. 그들의 도움 요구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불신자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무시하고 적대시한 유대인을 도왔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 구제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가?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만 듣고……행하면……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 15:4-5).

자비 사역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복이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권하에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질병도 없을 것이라 한다(신 7:12-16).

먼저, 언약의 백성인 가까운 친족을 먼저 도와야 한다(레 25:25; 딤펢전 5:8).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회원을 도와야 한다(신 15:7, 14:28-29; 행 6:1-7; 딤펢전 5:3-5; 롬 15:23-28).

다음으로, 자국민을 도와야 한다(창 41:53-57; 신 15:8, 10).

마지막으로, 외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친척, 친구, 지인, 이방인, 원수가 도움을 요청할 시 도와야 한다. 모든 사람(all man)이 나의 형제는 아니지만 누구든지(everyman) 내 이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가 무가치하고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온 것처럼(롬 3:9-18) 우리도 그리스도의 한없는 인내로 자비를 보여야 한다(딤펢전 3:12; 요일 3:17-19).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시다(눅 24:19). 그는 말뿐 아니라 행함으로 일하셨다. 자비 행위는 천국의 사인(sign)이다(마 25:31-46).

교회는 천국의 대리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행 8:12, 14:22, 28:23). 교회는 기적을 행할 수는 없으나 세상에서 자비 사역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 줄 수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말씀과 주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행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자비 사역은 복음 전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행위는 동등하게 필수적이다. 상호 독립적이고 나눌 수 없는 사역이다. 둘 다 각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한 율법사의 질문을 ‘누가 내 이웃인가?’ 를 묻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진행된다. 율법사가 여리고 도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도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가 당신의 이웃인가를 물었을 때, 그는 내 원수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내가 받은 대로 가서 행하라 하신 것이다.

자비 행위는 충격을 주었다. 마음을 녹이고 장애물을 제거한다. 복음에 적대하던 이로 하여금 복음을 존중히 여기게 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마 5:16). 서로 사랑하는 행위는 복음의 가치를 변증한다(요 13:35).

서로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행 4:32)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다른 형제들이 재빨리 관용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소유물을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소유권, 사용권, 회수권, 감사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한 이들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행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의 산울림으로 나타난 것이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눅 6:33).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비를 베푼다. 그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쳐다볼 것이다.

말씀과 행위는 실제로 연관이 있는가? 함께 가야 하는가? 우선하는 것이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말씀과 행위 즉 복음 전도(evangelism)와 사회적 관심(social concern)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비 사역과 사회 정의 구현만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정당한 기능이다. 사회적 관심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지만, 복음 전도는 우리 사명의 한부분이다. 사회적 관심과 복음 전도 즉 행위와 말씀은 그 중요성 측면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동등하다. 복음 전도가 우선하고 행위 사역은 필연적이지만 차선에 놓는다.

사회적 관심은 세상에서 전혀 교회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만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말씀 사역과 행위 사역은 동일하게 필수적인 사역이다. 행위 사역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구약에서 선지자와 왕직 그리고 제사직이 있었고, 신약에서 목사나 장로 그리고 집사직이 있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일과 병 고치는 일(마 4:23) 즉 말씀과 섬김 사역을 하셨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과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벧전 4:11). 말씀과 행위가 동등하게 명령된 것이라면, 그들은 둘 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필연적으로 동등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 관심은 복음 전도를 위한 단순한 수단인가?

행위 사역은 마치 은혜처럼 대가 없는 사랑이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눅 6:35-36).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곳에 거하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7-18).

행함의 동기는 사랑이다. 복음 전도의 동기와 같다. 구원의 방법이 요

청된 이에게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준다. 사회적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들과 나누는 것이다.

사회적 관심은 교회의 선택 사항인가?

말씀 사역과 자비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한 교회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면 사회적 관심은 그다음 순서라는 말인가?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고치시고(요 9:1-7), 시간이 지난 다음 그를 부르셨다(요 9:35-41). 또 다른 경우에 예수님은 치유 행위를 하신 직후 또 직전에 그에게 도전 또는 제자로 부르셨다(마 15:21-28; 막 5:21-43). 말씀과 행위는 둘 다 명령된 것이고, 둘 다 사랑이 동기로, 교회는 동일하게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

말씀과 행위, 이 두 가지는 불가분리의 공생 관계요 상호 의존적 관계다. WCC방콕 선언문(1973)에서 “사회적 관심(social concern)은 복음 전도(evangelism)이다” 라고 선언했다. 성경적으로 말씀과 행위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배고픈 자를 먹일 때 우리는 복음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행위는 복음 전도의 동반자(partner)이다. 동반자로 서로에게 속하나 각자 독립적이다. 서로의 수단이 아니고 다른 것을 나타낸다. 각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목적이 있다.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 또는 물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과 행위는 깨어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져온다. 궁핍, 질병, 부정, 감정적문제, 사회문제들은 모두 죄의 열매다. 우리는 전인 구원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정서적으로 온전해지도록 상담해 주고, 부정한 구조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육신적 필요를 채워 줘야 한다. 말씀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전도와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

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반되어야 한다. 말씀 선포는 믿음을 산출하고(롬 10:16-18), 믿음은 선한 행실을 낳는다(약 2:1-23).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통해 복음을 듣도록 마음 문을 여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하신다(행 4:32-33; 요 13:35; 요일 3:17-18).

자비와 전도 사역은 연기와 불과 같이 함께 있다. 이 둘이 함께 올 때 성공적인 교회 사역이 이루어진다.

2. 실천(Practice)

1) 4가지 채널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인 자비 사역의 성경적 교훈을 통해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리에 우리는 포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기능은 개발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비 사역을 4가지 채널을 통해 시작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 채널은, 가족이다. 모든 개인과 가족들은 자비 사역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채널은, 지역 교회다. 개교회가 자비 사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은사와 자원을 동력화한다.

세 번째 채널은, 개인적 또는 가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단체(parachurch organization)다. 병원, 고아원, 경로당 등을 설립, 또는 돕는 것으로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채널은, 국가다. 국가는 성경적인 동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왕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다(단 4:26-27; 시 72:1-2; 창 47:13-17).

2) 어떻게 할 것인가?

소외당함, 구타, 언어폭력, 분노, 갈등, 성격 장애, 부적응, 알코올 중독, 마약, 실연, 이념 갈등, 불안, 무기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자비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당신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만날 때 ‘stop, look and listen’을 1004 군인 교회 안에서와 병영 안에서 해야 한다. 같은 부대원은 계급과 직책여하를 막론하고 전우면서 침식을 같이 하는 한 가족이다. 부모 형제자매가 병들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를 도울 수 있는 이는 제일 먼저 가족이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stop, look and listen’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는지를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즉 얼음벽을 어떻게 깰지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한 도울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 접근했다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에 뛰어들지 못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도와달라고 우리를 부르기 전에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사정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에게 접근하도록 선수를 써야 한다. 외인으로부터 사권의 관계로, 사권에서 친지 관계로, 친지에서 친구로, 즉 관계성을 통해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신뢰의 풍토를 만들어라. 그를 잘 아는 친구를 다리로 놓아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의 진정한 문제를 돕기 위해 그의 마음문을 열도록 작은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그가 지지 못한 것을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공하라. 남의 도움만 받고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하던 사람에서 남을 돕고 사는 법을 작은 것

을 통해 보여줘라.

관계를 밀접하게 갖게 되면 그와 대화를 하게 된다. 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감정이입(empathy)을 시켜 그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이해해 주고, 사랑하고, 문제에 동참하라.

개인과 가족이 도움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자비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복음주의적 교회라도 자비 사역을 교회의 주사역으로 삼는 교회는 많지 않다. 정원에 토마토 나무를 심을 때 땅을 먼저 고르고 씨를 뿌리듯, 교회 회원들이 자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교인 중 자원봉사자가 생기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의 짐을 져 줄 수 있는 믿음과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랑과 헌신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회중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주 채널은, 강단을 통한 메시지다. 설교자는 주기적으로 자비 사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회중이 받은 은사와 자산을 청지기로서 사용하도록 교회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회학교 성경 공부반, 전도회나 선교회, 소그룹에서 자비 사역이 자생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

봉사 그룹을 교회 안에 조직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밀어주어야 한다.

봉사를 하는 개인이 매력 있는 성도로, 모범적 신자로 본을 보이면서 다른 성도들을 섬김의 자리로 끌어내야 한다.

종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은 갖고 있는가?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종 됨을 보이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요 13:1-14)고 명령하셨다.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눅 22:24-27)고 주님은 가르치셨다. 집사는 이 특별한 과업과 자세를 가진 이다.

교회는 먼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구제기

금을 조성하고 긴급재난을 당한 이를 도와야 한다.

또 전문 봉사 단체와 협력한다. 시 또는 국가의 전문 기관, 사회사업 단체들을 돕고 협력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3.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과 비전2020운동

비전2020운동이 영혼 구원 전도 사역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전우 사랑을 실천하여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한다.

교회를 경작하라. 굳은 땅을 갈아엎듯이 먼저 교회를 말씀과 행위 사역을 함께 하는 옥토로 만들어 교회 되게 해야 비전2020운동의 열매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먼저, 교회를 통전적((w)holistically) 시각으로 보게 하자.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옆문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영혼 구원뿐 아니라 육신 구원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둘째, 말씀 사역과 자비 사역을 통해 개인 성장과 교회의 질적 성장이 함께 오게 한다. 그러면 양적 성장도 이루게 된다.

4. 맺는 말

기독 장병들이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살아 건전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고 무사고, 무사기한 병영 천국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다음의 매뉴얼을 찾아 숙지한다.

- ① 선한 마음(33절) : 불쌍히 여기는 마음(그리스도의 사랑)
- ② 정확한 진단(34절) : 가까이 접근하여 상태 확인(관심표현)
- ③ 응급조치(34절) : 기름, 포도주를 붓고 짜냄(문제해결)
- ④ 계속 치료(34절) :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계속 돌봄(지속

적 관리).

- ⑤ 사후 관리(35절) : 주막주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고 계속 돌볼 것을 주문(끝까지 책임).

그 일을 위한 천사 역할 실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인사하기 : 먼저 접근하는 당신이 천사(웃으며, 눈을 맞추고, 악수하며, 이름을 부르며 정중하게)
- ② 경청하기 : 공감하는 당신이 천사(감정이입을 갖고, 애정을 갖고)
- ③ 동행하기 : 함께하는 당신이 천사(위기의 순간에 헬퍼로서)
- ④ 칭찬하기 : 격려하는 당신이 천사(낙심 중에 소망을 갖도록)
- ⑤ 선행하기 : 구원을 베푸는 당신이 천사(생명 구원을 열심히)

1004 군인 교회 장병들이 진중에서 각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강한 병영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는 천사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비전2020운동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화된 통일 조국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 박종화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신학석사)
- 독일 튀빙엔대학교 신학박사 학위(Dr. Theol)
- 경동교회 담임목사
- 대화문화아카데미(전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사장
- 대한기독교서회 이사장
- (재) 국민문화재단(국민일보) 이사



1. 그 때와 오늘의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사마리아는 지역적으로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대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북한과 남한의 중간 지역인 비무장 지대를 연상시킨다. 다만 우리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철조망이 있고 출입이 불가능하다.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는 유대 백성과의 증오와 불신 때문에 출입 기피 지역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가 유대 입장에서는 상종 못할 일종의 '불가촉' 부류에 속했다.

분단 시절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

면서 비극의 도시로 변했다. 사회 지도층을 강제로 식민 지역으로 흩어 내어 쫓고, 대신에 아수르 제국에 속한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등지의 사람들을 이주 오게 하여, 이들의 관습, 정치, 역사, 심지어 종교까지 들여와 이방 신 숭배의 진지로 만든 것이다(왕하 17:24-41; 요 4:9).

훗날 남방 유다가 바사(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후의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개축할 때 이미 잡신 중심지로 변하고, 혼혈로 잡종 종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건축 참여는 물론 성전 예배 참여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에 그들만의 성전을 짓고 따로 예배드리게 될 정도로 민족적, 종교적 분단 상태에 있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회 내적으로 다양한 계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 율법주의가 사회 구성체의 표준인 사회에서 본류에 속하는 제사장과 그 다음 순위인 레위인은 한국 사회의 주류 사회를 대표할 것이다. 천민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로 비유하면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서 볼 때 절대 빈곤층이고, 인종적 비유에서 본다면 빈곤국 출신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일 것이고, 버림받은 고아들이요 유랑하는 홈리스들일 것이다.

극단적인 대조와 대칭의 사회 현실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은 이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열려 있다. 오히려 이들의 진정한 사랑이 더욱 빛난다. 물론 사회의 주류 세력, 오늘날의 제사장과 레위인 사회, 이들에게도 사랑의 기회와 명령이 동시에 주어져 있다.

그런 뜻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민족, 계층, 문화, 심지어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임을 예수께서 말씀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존 칼빈(Hamnie, 561-565)의 말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모든 인간"이고,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교만과 돌짜 같은 위선"의 대변자일 뿐, 사랑의 대변자는 아니다. 또 가톨릭 신학자 카제탄(Cajetan, *Evangelia*, 127)의 말대로 "모든 인간이" 인종과 나라의 경계를 초월하여 "우리의 이웃"(omnis homo est proximus)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Ev.-Katholischer Kommentar zum NT, III/2, 특히 97-100 참조).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첫째 요건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이웃은 모든 인간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병영과 군인 교회 운동을 펼치려는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군인 교회는 물론 병영에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군인'이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을 벌이려는 우리의 '이웃들'이다. 계급, 보직, 종교, 신분, 계층, 성별, 학력 모두를 초월한다. 여기서 우리는 군신자화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음을 확인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둘째 요건이 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을 이웃이 분명함과 동시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자 하는가의 결단 문제가 있다. 달리 말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또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의 질문이 하나이고, '우리가 누구의 이웃인가?' 또는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의 질문이 다른 하나이다. 이 두 가지는 주객이 서로 다르다. 전자는 사랑을 받는 자 중심의 이웃 사랑이고, 후자는 사랑을 베푸는 자 중심의 이웃 사랑이다. 전자는 수동적인 사랑의 행위이고, 후자는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이다. 전자는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족할지 모르나, 후자는 이웃과 삶을 함께하는 연대 행위의 사랑이어야 한다. 이 후자를 확 인함이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둘째 요건인 셈이다. 군 병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의 이웃'이 되기로 스스로 결단하는 신앙고백과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군신자화 운동의 또 다른 '차원'을 열어가려 함을 알아야 한다.

일차적인 결론은 이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의 진면목을 가르치심에 있다. 물론 그 첫째는, 이미 위에서 말했듯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

까’ (눅 10:29)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강도 만난 사람—그 사람의 신분이 누구이든 간에—이 이웃임을 확인시킨 점이다.

둘째는,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눅 10:36)라는 예수님 자신의 질문을 통하여, 적극적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자. ‘사랑은 관계의 삶’이라는 점이다. ‘이웃 사랑은 받는 이웃과 베푸는 이웃 상호 간의 사랑’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의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요 실증이 된다는 말이다.

2. 1004 군인교회의 ‘선한 사마리아인 공동체’ 만들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두 데나리온을 선불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더 갚겠다고 약속하고 길을 떠났다. 여기서 종교개혁자 루터(M. Luthers Evangelien-Auslegung, 738-749 in Ev.-Kathol. Kommentar, 상동)는 예수의 비유 말씀 가운데서 제시하신 ‘주막’과 ‘주막 주인’에 주목하며, 그것의 교회론적 의미 내지 기독교적 윤리의 관점에 관심을 갖는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오늘 주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말하면, ‘주막’은 ‘군인 교회들’이다. 그리고 주막의 ‘주인’은 군인 교회의 ‘군목들 및 군중요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난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우, 설령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싶었다 해도 이 사람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주막(=병원)이 없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문이 닫혀 버렸다. 안식일 예배 말고는 다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의 업무도 끝났다. 종교적 임무 곧 성전 예배 말고는 강도 만난 사람 돕는 일은 이들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성전’은 ‘안식일 예배

의 장소’일 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센터는 이미 아닌 것이다. 오늘의 ‘군인 교회’는 주일의 교회만인가, 주일 예배의 장소만인가, 교인들만의 회집장인가?

주막의 주인인 군목과 군중 요원은 군 신자화만의 주역인가, 예배를 집전하고 각종 예전을 행사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가?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성전과 1004곳이나 있는 병영의 군인 교회는 위치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다. 유대 종교의 예배 장소로 기능하는 성전을 넘어서는 ‘만민’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요 군인교회이다. 사마리아인은 ‘종교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군인들이 기꺼이 신뢰하고 환자를 모셔 가고 싶은 장소가 군인 교회인가? 강도 만난 사람이 기꺼이 생명을 맡기고 싶은 생명 살림의 위탁소로 기능하는 군인 교회인가? 환자의 신분이나 종교나 계급을 불문하고 위로와 격려를 조건 없이 베푸는 곳이 군인 교회인가? 군목과 군중 요원은 이처럼 ‘신자화’와 동시에 모든 벽을 뛰어넘어 ‘사랑의 봉사’를 실천수행하는 병영 전체의 목양자들인가?

병영 내에서 모든 군인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도움받기 위하여 가고 싶고 가야 하는 ‘주막’으로서의 군인 교회가 계속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주막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맡는 군인 교회 목회자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군신자화 2020의 구체적인 한 정향점이다. 병영의 안식처요, 정신적 보루요, 위로와 기쁨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런 정신적 오아시스의 풍성한 청지기가 군목이라고 믿는다. 말하자면 ‘병영이 군인 교회로 모여드는, 모이는 공동체’ (a gathering church)로서의 기능이 심화확대되어야 한다. 이곳이 정신 전력의 산실이고, 인간 구원을 맞보는 보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을 펼치려 하는 군인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에서 다시 ‘흩어지는 공동체’로 탈바꿈을 시도해야 한다. 말하자

면 강도 만난 자들을 현장으로 ‘찾아가는 공동체’ (a church inside-out)로의 탈바꿈이다. 주일의 교회에서 주간의 교회로 말이다. 특별한 날의 교회에서 일상의 교회로 말이다. 교회 모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병영 현장 중심의 ‘생활 신앙’으로 선교와 전도의 틀이 옮겨 가야 한다. 군목과 군중 요원이 업무와 입장을 선택하려면, 성전예배에 전념하며 모이라고 외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기보다는 스스로 병영 속에서 아프고, 희생 당한 자를 찾아 돌보는 사마리아인, 아니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목회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군인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 모두여야 한다. 다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을 펼치려는 이면에는 우리가 그동안 ‘모이는’ 복음화에 진력한 나머지 ‘찾아가는’ 선교에 대해서는 등한시켰다는 자기반성도 크게 자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강조된 신앙생활이 생활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사회의 질책과 비판 앞에서 있는 오늘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군선교와 복음화 운동에 있어서도 역시 일종의 패러다임 쉬프트를 요구하고 있다고 믿는다. 말하자면 군인 교회는 병영의 헌신적 ‘소금’으로, 또는 그러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병영의 정신적 ‘빛’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자각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병영 속의 ‘소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가? 또 병영 속의 ‘빛’은 어떤 모습인가?

3. 군복음화의 패러다임 쉬프트

결론적으로 말해서, 군복음화의 실체는 군신자화의 통계가 말하는 ‘양적 성장’에 머물 수는 없다. 이것은 군신자화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서 기독교가 보여주고 또 사회가 보는 교회의 위상과 역할이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하락되는 평가에 걸맞게 양적 성장마저도 쇠락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바로 그 증거

이다. 이제는 양적 성장의 담론을 넘어 ‘질적 성숙’의 단계로 속히 진입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이 질적 성숙의 모습인가 하는 과제를 놓고 군복음화 운동이 ‘병영에서의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운 것은 해안의 정책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이 운동을 ‘질적 성숙 지향의 선교 운동’으로 명명하고 싶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와 병영이 경험한 ‘종교’는 반쯤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의 현장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식 종교’, ‘끼리끼리만의 종교 단체’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축소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독교 복음은 우리들 교회를 “종교단체”로 전락시키려 하지 않는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삶이다.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sociality),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종말적 공동체(identity)로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것이 살아 계신 주님의 ‘몸’으로 기능하는 한, ‘세상에서 세상을 넘어’ (in the world, but beyond the world)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소금과 빛으로 보여주며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강원용 목사는 이런 모습을 “사이-넘어” (Between-Beyond)라고 표현하고 있다.

강도 만난 현장을 보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태도와 사마리아인의 태도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같은 점은 이것이다. 강도 만난 사람의 현장에 대한 눈은 같았다. 양쪽 다 그 현장이 몹시도 ‘아팠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양쪽의 반응은 극단으로 갈린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현장을 바로 피한다. 아마도 자기들도 강도 피해가 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유대인 특유의 율법주의일 것이다. 반쯤 죽어가는, 반쯤 시체가 되어 버린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결하기에, 금하는 정결 율법이 떠올랐을 것이다. 편리한 회피용 율법인 셈이다. 여기서 이들의 ‘아픔의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아프긴 한데 먼저 ‘골치가 아팠던’

것이다. 머리가 아팠던 것이다. 이성적 주지적 율법신앙의 모습이다. 강도 만난 자와 이들의 ‘관계’는 법적, 율법적, 냉철한 합리주의의 발상에 근거한 관계이다. 이들 사이에는 ‘나-그것’ (I-It)의 관계일 뿐 ‘우리’ (we)가 없었다.

사마리아인의 반응은 달랐다. 현장을 목격한 이 사람은 우선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다.’ 이 둘 사이는 이미 ‘한 몸’이었다. ‘공감’이요 ‘연대’였다. 그러기에 둘 사이에 ‘나-너’ (I-thou) 관계요, ‘우리’ (we) 공동체가 성립된 것이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가 자기 자신이었던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이다. 물론 둘은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의 실질적 잣대요 준거를 이웃 사랑에서 찾으시려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나아가 더욱 중요한 점이 있다. 이웃 사랑을 명하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나아가 가장 진실로 사랑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 사랑의 진실성과 최선성을 이웃 사랑에서도 똑같이 보이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랑의 계명은 이중 계명이라기보다는 ‘삼중의 사랑 계명’ (M. Buber)이라고 명명함이 옳을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강도 만난 이웃을 똑같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고 본다. 강도 만난 이웃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이웃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았을 것이다. 또 본 것이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끊어질 수 없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속에서 이 인간의 아픔을 ‘아파하

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함께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라도 그분을 품고 담고 사는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담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똑같은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나 실제로 보지 못한, 아니 보려 하지 않는 ‘종교인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교리와 신학(=율법)은 있었으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기에 ‘비종교인’으로 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파하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섬김(=복음의 은혜)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입은 자는 본 비유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인이다.

감히 말하고 싶다.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실천한 점,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실천한 점,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점 때문에 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군복음화가 지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은 그냥 ‘사마리아인 운동’일 수 없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이고 또 그래야 한다.

4. 맺는말

건강한 병영은 군인 교회가 사는 세상이다. 세상과 교회는 운명을 같이한다. 병영이 건강해야 군인 교회가 건강하고, 역으로 군인 교회가 제대로 서야 병영이 평화롭다. 군인 교회는 병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 헌신적 선한 사마리아인 봉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동시에, 군인 교회는 병영의 ‘빛’이어야 한다. 그 말은 병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야

하고, 그 가치의 모범을 교회가 보여야 한다. 그런 뜻에서 군인 교회는 병영 교회로 살되, 병영을 넘어선 하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

군인 교회가 '선한 주막' 이 되고, 군목이 '선한 주막 주인' 이 될 수 있으면, 병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잠재적'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들의 잠재력은 신자화 운동과 사랑의 봉사 운동을 통하여 '실천적' 사마리아인들로 바뀔 것이다. 이들이 병영을 넘어 제대한 후에 사회에 복귀해서도 '선한' 사마리아인들로 성장하고 일하도록 병영 교회에서부터 양육되고 격려받으며 살아야 한다. 혹 사회 일반에서 잘못하고 있고 또 게을리하고 있는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이 병영에서부터 그리고 군인 교회로부터 그 불길이 타오른다면 이 땅의 '건강한 평화' 와 '건설한 복음화' 가 크게 뿌리 내리고 결실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 주연중

- 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군종목사
- 총신대학교 및 동 신학대학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Th.M.)
- 미 풀러신학대학원 수학
-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Ph.D.교회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현 사랑의 교회



박종화 목사님은 군종 목사로서, 학자로서,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 운동의 큰 발자국을 남기시며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받는 분이다. 민주화의 여정에서 정치권의 통합을 위해 교회의 순기능을 발휘하시며 헌신하셨다. 실천하는 신앙인이며 군목 시절 구령의 열정을 아직도 놓지 않고 계시는 목회자이다.

박종화 목사님의 본 논문은 그 자신의 삶과 평소의 주장, 그리고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과도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이 논문의 형식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내용에 있어서 한국 군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량감이 느껴진다. 본 논문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주

나 참고 문헌 등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논문으로 보기보다는 제안 발언(a proposal speech) 혹은 기조연설(a keynote address)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본다.

발제자는 1장에서,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에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논문을 시작하고 있다. 사마리아의 지리적,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언급함과 아울러, 혼혈로 인해 잡종 종족이 되어 버린 상황적 처지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적 언어로 사마리아인을 절대 빈곤층, 다문화 가정 구성원, 버림받은 고아, 유랑하는 홈리스(homeless)로 유비(類比)시킴으로, 2천 년 전의 상황을 단번에 오늘, 여기로 끌어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마리아인에게도 사랑을 베풀 자격이 열려 있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두 요체를 제시한다. 첫째 요체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이웃이라는 것과, 둘째 요체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위 두 요체를 모든 군인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모든 군인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시킨다.

2장에서 발제자는 주막은 군인 교회들이고 주막의 주인은 군인 교회의 군목들 및 군종 요원들로, 따라서 군종 목사와 군종 요원들은 종교 제의가 끝난 후에는 자신의 역할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했던 레위인과 제사장 과 달리, 사랑의 봉사를 쓸선수범해야 하며 종교 의식이 끝나면 폐쇄되었던 성전과 달리, 1004 군인 교회는 항상 열려 있는 ‘모이는 공동체’(a gathering church)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병영 내의 군인 교회는 흠어지는 공동체, 찾아가는 공동체,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생활 신앙의 파견지, 주일의 공간에서 주간의 공간으로 변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 교회는 정신적 소금이며, 병영의 빛으로 기능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3장에서 발제자는, 이제 군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질적 성숙 지향의 선교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삶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군인 교회와 사역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공감’, ‘한 몸’, ‘연대’ 와도 같은 ‘우리 의식’ 에 기반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고 있다.

4장은 결론부로서, 군인 교회가 선한 주막, 군목과 군종 요원은 선한 주막 주인이 된다면 병영 내의 잠재적인 수많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기능함으로 병영이 변화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박종화 목사님의 본 논문은 지난해에 있었던 신학 세미나의 설교를 좀 더 정교하고 풍부하고 다듬은 것뿐 아니라, 목사님의 평소 사역과 삶을 연관지어 볼 때 명료하게 이해되는 내용이다. 특이한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자격과 책임을 동시에 가진 자로 설정하고, 군인들을 잠재적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적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박종화 목사님의 논문으로 제시된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양’ 에서 ‘질’ 로, ‘특정 장소’ 에서 ‘모든 장소’ 로, ‘예배 시간’ 에서 ‘어느 때든지’ 로 전환하는 실제적인 노력들이 선한 주막에서 그리고 선한 주막 주인들로부터 열매를 맺기를 기원해 본다.